

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방지원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 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 자료 중 1차 설문시기에 대학 4학년, 2차 설문시기에 대졸자, 3차 설문 시기에 취직 혹은 대학원 진학한 137명을 추려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텔(ARCLM)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1년 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 효과가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셋째, 2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졸업 후 실제 직업 선택 시기에 진로정체감에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횡단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도 두 변인이 상호작용 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주요어: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첫 취업, 종단연구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E-mail: skyoo@ewha.ac.kr

서론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school to work)을 준비하는 시점으로서(김봉환, 김계현, 1997) 이 시기의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조율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Ginzberg, 1988).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과 함께 결혼과 같은 새로운 발달과업의 시발점이 되기에(Erikson, 1968; Super, 1980; Warr, 1987) 대학생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표현한 88만원 세대, 대학 졸업 후 취직이 어려워 졸업을 유예하는 NG족 등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6년 5월 청년 실업률이 9.7%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그 중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률은 2005년 6.2%에서 2015년 9.6%로 증가했다고 한다. 매해 증가하는 실업률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2%에서 2016년 42.7%(통계청, 2016)로 꾸준히 줄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하기 까지 약 11개월이 걸리며,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켜(류진혜, 김은정, 2000) 상당수 대학생들이 직업적인 준비 측면에서 성숙하지 못 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 또한 명확하게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철영, 2011).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대학 상담센터나 학생생활 연구소의 보고에서도 들어나는 바로 대학생들의 주 고민은 자신의 진로방향 혹은 직업 선택의 방향이 적절한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한지,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한 취업준비 행동 방해로 나타나고 있다(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 및 직업 선택 방향의 혼란은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자신과 진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으로 제시된 진로정체감 확립(Erikson, 1968)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이후로 유보 되었기에(김기정, 이연희, 1999)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진로정체감 유예 단계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강갑원, 김민자, 전나영, 2014; 서유란, 이상희, 2012). 더 나아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교 시기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교육부, 2014) 대학생 시기로 유보된 진로정체감의 확립(Waterman, 1985)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취직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성숙한 그림을 그리는 경험이 없어 진로에 대한 명확한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정철영, 1994).

또한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부족한 확신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장벽으로 이어져 (이기학, 1997) 결국 자신이 진로에 관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부족이 진로문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중요한 변인으로서(배주윤, 2009; 송주현, 2008; 윤훈상, 2005),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는 취업준비 대학생들을 더욱 좌절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겪게 한다(박미경, 이현림, 2008).

요약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개념과 일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진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나(김태환, 2013) 현재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 외, 내적인 요소들로 인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첫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처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Ellwood, 1982), 한국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사회 문화적인 현실에 대한 고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발달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진입하기 이전 본격적으로 진로결정이 요구되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잠정적인 직업적 대안을 도출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그 실현 가능성에 따라 잠정적인 선택을 한 후 이를 구체화 시켜 최종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서(Gottfredson, 1981; Harren, 1979),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단순한 정보수집 및 탐색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Harren, 1979). 이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Super(1963)는 진로정체감이 명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높은 동기수준을 갖고, 높은 정체감이 뚜렷한 목표로 작용하여 힘든 구직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수록 그 상황에 맞는 진로 선택을 더 잘하고 자신과 일의 세계를 더 잘 연결하기에(Holland, Daiger, & Power, 1980),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성숙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김봉환, 김계현, 1997; 장지선, 2005; 홍혜경, 1998; Holland, & Holland, 1977)이 밝혀졌고, 진로정체감이 진로 성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결과 또한 연구되었다(Fuqua, Blum, & Hartman, 1988).

진로정체감과 더불어 진로결정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이란 자기주도적 신념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진로 선택과 진로 관련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기대와 수행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진로발달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홍혜영, 안혜선, 2009). 진로 영역의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Hackett & Betz, 1981).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더 강하게 발달되고 유지되는데(Ford & Smith, 2007),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더 강한 동기로 이어지고, 그 결과 진로 발달과 관련된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 연구에서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 행동,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태도 성숙 예측, 진로 선택, 진로 성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란, 2007; 김선중, 2004; 김수지, 이정자, 2013; 이희영, 2003; 임은미, 이명숙, 2003; 한주옥, 2004; Betz, & Hackett, 1983; Luzzo, 1993; Robbins, 1985)는 것이 밝혀졌고,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양난미, 2006).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을 29%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임을 결과로 내었고, 양진희와 김봉환(2008)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 효능감, 미래계획 효능감, 문제해결 효능감이 구직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진로요인으로서 준비행동이나 결정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힘든 취업난과 구직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및 장애를 지각하더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진로준비행동을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동기구성요소 중 목표로서의 정체감은 개인의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신념인 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제공하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기를 구성하고 조직화하여 개인의 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Ford, 1992). 이를 진로영역에서 살펴보면 진로 목표로 정의될 수 있는 진로정체감과 진로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평가적 정보로서 서로 상호 작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실시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상관이 있었고(Fuqua, Newman, & Seaworth, 1988; Gushue, Clarke, Pantzer, & Scanlan, 2006; Robbins, 1985),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어(이정규, 2006; 이정애, 최용용, 2008; 이경선, 2009) 두 변인이 진로발달에 있어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다소 비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반대로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있었다(Fuqua, Blum, & Hartman, 1988). 이러한 일관되지는 연구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의 연구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두 변인사이의 상호인과성만을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진로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 유형, 진로준비행동, 진로

교육등)과 함께 포함시켜 진행되었기에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방향에 대한 직접적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횡적 자료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상호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이정애, 최응용, 2008) 실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에 어떤 종단적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시간, 환경 및 경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Rueda & Dembo, 1995; Tiedeman & O'Hara, 1963)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첫 취업을 하는 3년 동안의 과정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각각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또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라는 진로선택과정은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이므로(강선영, 1996) 종단연구를 통해 졸업을 앞둔 이들의 진로결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화여대 여성 진로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여대생들의 일가족다중역할에 대한 계획 변화의 종단연구'의 1,2,3차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1개월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내에 진로선택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1차년도 설문 참여 시 대학 4학년, 2차년도 설문 참여시 대학졸업 후 미취업 혹은 미진학 상태, 3차년도 설문 참여시에는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 137명(3차년도 기준으로 남 37명, 여 100명)을 선택해 분석 하였다. 종단 자료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차와 2차 사이에, 2차와 3차 사이에 표본의 유실이 발생하여 결측치 발생 및 각 시점의 응답자 수가 다르게 되었다. 특히, 2차 시점에 유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한 15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3차년도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게 되었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과 Taylor(1996)가 단축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변환, 수정하여 타당화한 이은경(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총 5개의 하위척도에 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하위 척도별 합치도는 자기평가 .76 직업정보 .68, 목표선택 .75,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1, 2차 .94, 3차 .92 이었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년도에 .69-.79, 2차 년도에는 .75-.82, 3차 년도에는 .68-.80 이었다.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ia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VIS(vocational identity scale)를 김봉환(1997)이 변안한 한국형 VIS(Vocational Identity Scale)를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 원 검사에서는 높은 점수가 낮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을 사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1차 .92 2차 .91 3차 .91 이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안정성 및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Curran & Bollen, 2001),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뚜렷한 인과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ARCLM) 중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은 [t-1]시점의 값으로부터 설명된다는 것이며,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의 핵심은 두 변인간의 시간의 지연에 걸친 상호작용에 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ARCLM을 설명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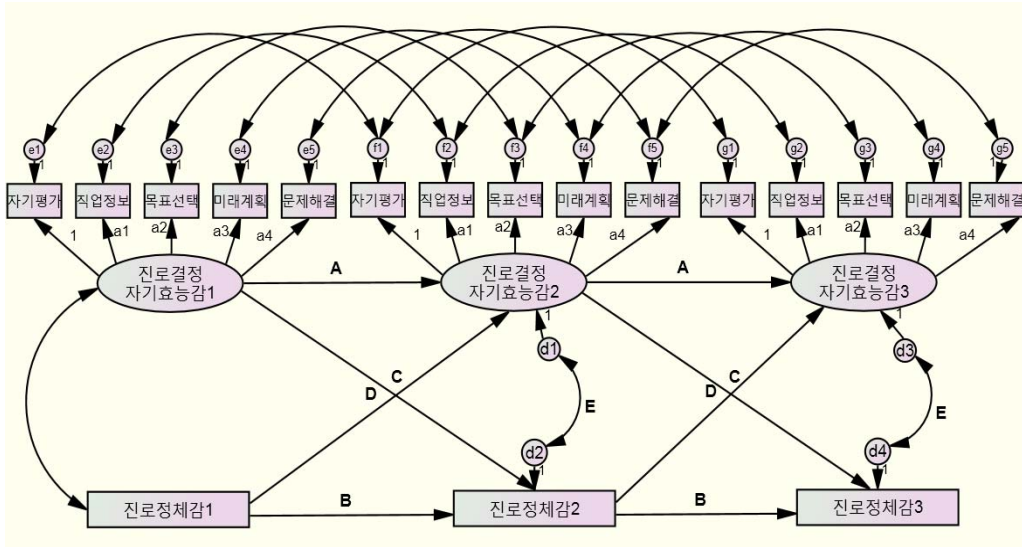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진로결정 자기효능감}_i[t] &= \beta_0[t] + \beta_1 \text{진로결정 자기효능감}_i[t-1] + \beta_2 \text{진로정체감}_i[t-1] + r_i[t] \\ \text{진로정체감}_i[t] &= \gamma_0[t] + \gamma_1 \text{진로정체감}_i[t-1] + \gamma_2 \text{진로결정 자기효능감}_i[t-1] + e_i[t] \end{aligne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_i[t]는 [t]시점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beta_0[t]$ 는 [t]시점의 절편을, β_1 은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_i[t-1]은 [t-1]시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값을, β_2 는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진로정체감_i[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r_i[t]$ 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진로정체감_i[t]는 [t]시점에서의 진로정체감의 측정값을 나타내고, $\gamma_0[t]$ 는 [t]시점의 절편을, γ_1 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진로정체감_i[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γ_2 는 [t-1]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t]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진로정체감_i[t-1]은 [t-1]시점의 진로정체감 측정값을, $e_i[t]$ 는 [t]시점의 오차를 뜻한다.

자세한 모형은 그림1로 제시하였다. 그림1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2, 3과 진로정체감1, 2, 3의 숫자는 각 측정시점을 의미하며, 경로계수에 표시된 알파벳은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위해 사용되었다. a1, a2, a3, a4는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 A와B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 C와D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E는 오차 공분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한다.

ARCLM 검증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내재된(nested) 경쟁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간명하면서도 설명력이 있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그 모형의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를 통해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모형비교를 위해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해야하나,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 Lewis Index)와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이용하였다.

Hu와 Bentler(1999)에 따르면 TLI와 CFI는 .95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나, Browne과 Cudeck(1993)과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상대적인 지수로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절대적합도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 수치를 따라 해석하였다.



[그림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교차차이 모형

중단 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하였고, 결측치 처리 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측치를 삭제하거나(Listwise Deletion), 대체하지 않고(Mean Imputation) 각 사례의 우도함수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Kline, 2011).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고(Arbuckle, 1996), 중단자료에서 발생한 결측치도 모두 분석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양희, 2008).

또한 중단연구에서 잠재변수를 반복변수로 설정 할 때 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종단적 구인 동일성을 확보하여야하는데(Taris, 2002), 구조 모형 검증에서는 요인계수의 동일성 혹은 측정동일성을 뜻하는 약한 구인 동일성을 충족하면 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이는 응답자들이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측정 변수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잠재변수로서 5개의 지표변수로 구성하였고, 진로정체감은 단일 지표변수로서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반복측정 설계로 인해 측정오차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Pitts, West, & Tein, 1996). 그 이유로는 한 측정 변인(예: 1차 년도의 자기평가)의 측정 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나, 나머지 일부는 동일 잠재변인(예: 1차 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 변인들(예: 1차 년도의 직업정보)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졸자의 첫 취업 과정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Joreskog, 2002). 이런 공변량 관계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감소 할 수 있다(최희철, 황매향, 2010; 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 변인 | 1차년도(N=125) | | 2차년도(N=112) | | 3차년도(N=137) | |
|------------|-------------|-----|-------------|-----|-------------|-----|
| | M | SD | M | SD | M | SD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3.72 | .51 | 3.76 | .57 | 3.62 | .54 |
| 자기평가 | 3.85 | .61 | 3.86 | .62 | 3.68 | .64 |
| 직업정보 | 3.7 | .60 | 3.71 | .67 | 3.61 | .64 |
| 목표선택 | 3.86 | .63 | 3.85 | .64 | 3.6 | .66 |
| 미래계획 | 3.71 | .64 | 3.72 | .68 | 3.61 | .64 |
| 문제해결 | 3.48 | .71 | 3.64 | .7 | 3.62 | .67 |
| 진로정체감 | 2.84 | .76 | 2.64 | .52 | 2.56 | .52 |

구조모형의 검증과 자료 분석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두 변인 간에 종단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에서는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다음 8단계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1: 그림 1에서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제외한 기본 모형이다.

모형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동일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설정한 모형이다. 모형1에 d1, d2과 d3, d4 사이에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모형3: 모형2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1에서 세 시점의 a_1 , a_2 , a_3 , a_4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서 동일하게 제약했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모형4: 모형3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그림1의 A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5: 모형4에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1의 B는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뜻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모형6: 모형5에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C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효과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모형7: 모형6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 1에서 D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효과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지를 평가한다.

모형8: 모형7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 간 공분산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이다. 그림1에서 E는 오차 간 공분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이므로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했을 때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외, 2007). 8개의 모형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기본 모형1과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2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명성을 나타내는 자유도(df)값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설명력을 나타내는 차이 검증치가 유의도 .01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감소하여 설명력을 획득하고, 모형적합도 비교 시에도 모형2의 적합도들이 모두 모형1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모형2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변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3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CFI는 근소하게 줄었지만 TLI는 근소하게 증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4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

<표 2> 모형 비교 결과(N=137)

| 모형 | x^2 | df | TLI | CFI | RMSEA (90%신뢰구간) |
|----|---------|-----|------|------|--------------------|
| 1 | 229.465 | 119 | .889 | .923 | .082(.066-.098) |
| 2 | 171.885 | 117 | .944 | .962 | .058(.038-.076) |
| 3 | 183.051 | 125 | .945 | .960 | .058(.039-.075) |
| 4 | 184.746 | 126 | .944 | .959 | .058(.039-.075) |
| 5 | 186.390 | 127 | .944 | .959 | .058(.039-.075) |
| 6 | 187.548 | 128 | .945 | .959 | .058(.039-.075) |
| 7 | 189.962 | 129 | .944 | .958 | .058(.040-.075) |
| 8 | 190.697 | 130 | .944 | .958 | .058(.039-.0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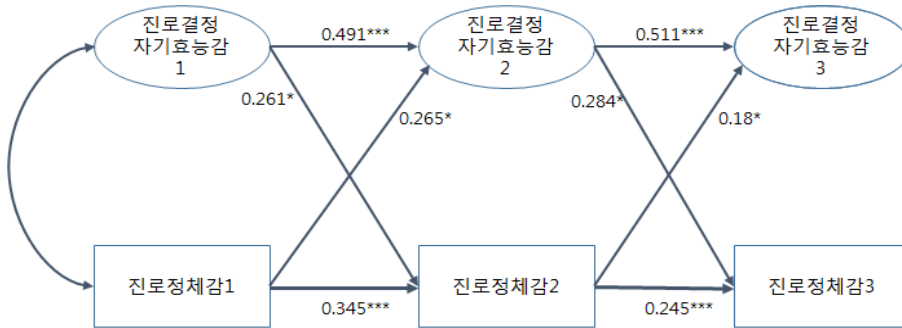
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한 모형5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진로정체감의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6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정체감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7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아 시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7과 오차 공변량을 제약한 모형8의 차이검증 결과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모형의 적합도도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오차들 간의 공분산의 시간에 따른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형8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8의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림 2로 표시하였다.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모두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그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그 다음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3>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 경로 | 표준화된 추정치 | 표준오차 | 비표준화된 추정치 |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491*** | .083 | .521***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 .511*** | .083 | .521*** |
| 진로정체감1 → 진로정체감2 | .345*** | .067 | .239*** |
| 진로정체감2 → 진로정체감3 | .245*** | .067 | .239***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 진로정체감2 | .261* | .085 | .269* |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진로정체감3 | .284* | .085 | .269* |
| 진로정체감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 .265* | .065 | .189* |
| 진로정체감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3 | .180* | .065 | .189* |

*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 추정 결과

결론 및 논의

대학 졸업 후 첫 직업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4학년에서부터 졸업 후 1년 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이 두 변인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진로정체감 또한 이전 시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요약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 혹은

대학원 진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자기회귀 효과를 비교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가 진로정체감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기회귀 효과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정애와 최용용(2008)의 연구에서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유의하게 증진시켰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하위영역 중 자기평가 부분만 유의하게 증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증진시키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진로 상담으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정체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변화하며(박아청, 1993; Tiedeman, & O'Hara, 1963), 진로정체감 또한 진로 발달에서 자신의 흥미와 가치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을 위한 계획을 인식하고, 직업 목적을 형성하는 지적 과정 단계의 과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기에(Super, 1963)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 하여 진로정체감 또한 수정되고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물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는 있지만, 자기효능감의 증가란 자신의 신념이 재확인 되고 정교화 되는 과정으로서 이전에 경험한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의 기초 자원이 되므로(Rueda & Dembo, 1995) 이전에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던 개인일수록 그 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김사라형선, 2013; 이순옥, 2014)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변화 정도가 비슷하게 나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인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지연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변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을 통제된 후에도 이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이 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이전 시점의 진로정체감도 이 후 시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횡단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며(권경남, 최은희, 2010; 이경선, 2009; 정점숙 외, 2014; 조명실, 최경숙, 2007; 최송화, 2011),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변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통해 진로정체감 확립 혹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켜준다면 이 후 시점의 다른 변인 또한 성숙시켜 궁극적으로는 진로성숙의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조명실, 최경숙, 2007; Fuqua et al., 1988)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선행적 인과성을 발견하기 위해 시점에 따른 두 변인간의 교차지연 효과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교차지연효과는 양방향 모두에서 유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변인이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 크기(0.261, 0.265)는 양 방향이 비슷하여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하고 두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선행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는 시기별 경험에 따른 차이로 유추할 수 있는데, 1차년도의 대학생 상태에서 2차년도에 졸업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뚜렷한 직업 선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의 교차지연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년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0.284)이 2차년도의 진로정체감이 3차년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0.18)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졸업 후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 행동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2차년도의 졸업 이후 3차년도에 취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진로선택의 경험을 했기에,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 결정행동의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이은경, 이해성, 2002; 정미숙, 2015)이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Brooks, 1990), 직업탐색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Blustein, 1989; Luzzo, 1993)는 것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박소연(2008)의 연구에서 청년층 직업진로 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진로자기효능감은 15-19세보다 20-24세에서, 20-24세보다 24-29세의 연령대에서 더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실천 단계에 들어선 연령대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도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직업을 선택하는 실천 단계를 거친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미래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인의 흥미, 능력, 재능의 발견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포함되기에(Gushue et al., 2006; Holland et al., 1980), 제한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던 1차년도 보다 졸업 후 더욱 적극적이고 체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취업 성공경험을 가진 2차년도에서 경험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욱 강하게 다음 시점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된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 및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성인진입기 이전 시점부터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개입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진로 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서미아, 2003; 홍향표, 2003; Luzzo, Funk, & Strang, 1996; Luzzo, Hasper, Albert, Bibby, & Martinelli, 1999; McWhirter, Rasheed, & Crothers, 2000),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고(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박완성, 2005; 조지영, 천성문, 1999; Schmidt & Callan, 1992), 진로태도 성숙에 효과적이라는(배은경, 2003; Luzzo et al., 1996; Luzzo et al., 1999) 결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진로상담 및 개입의 중요성 및 효과성을 시사한다(김민순, 2001; McWhirter et al., 2000). 덧붙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은 개인 상담보다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 이뤄질 수 있기에(김은희, 김봉환, 200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둘째, 교차지연 효과로 확인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성은 대학생 진로 교육 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중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는 1차에서 2차 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차 시기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선행적 인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이전 시점에서부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우선적 초점을 두는 진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주원(2013)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 행동 사이에 긍정적 상관은 있었지만, 진로정체감이 독립적으로는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조명실, 최경숙(2007)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배성숙 등(2014)의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제적인 취업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 전 대학생 시기에 진로 개입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실제 구직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높은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어 성숙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첫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생들에게 이전의 학생 신분일 때와 비교 하면 더 높은 취업 장애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졸업 시기에 높은 취업 장애를 지각하게 되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고(McWhirter, & Paa, 1999), 이는 이후의 낮은 진로정체감과 낮은 진로 준비행동(김경미, 백사인, 2011; 김선중, 2004; Luzzo, 1997)으로 이어지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집중 된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진로 교육 개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1을 살펴보면, 2차시기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1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하락했고, 3차시기는 2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에서 하락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은 2차시기는 1차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 하였지만 3차시기에는 다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실제 직업을 택하여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전반적인 진로정체감의 점수 하락을 가져 온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통계청, 2014) 대학에 입학 할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 한다기보다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 및 전공학과에 진입하고 있으며(김신정, 문희경, 2005), 대학 진학 후에도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용길, 강경희, 2011). 이는 더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가져와(김명옥, 박영숙, 2012)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안정된 직장 혹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김지연, 2016).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새로운 직무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해 1년 이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하며(이종찬, 홍아정, 2013),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2차 년도와 3차 년도 사이에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로정체감 혹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있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주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진로준비행동, 진로 성숙과 같은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진로 관련된 변인들 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의 졸업 후 첫 취업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기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횡단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에서 한층 더 폭넓은 시각의 연구로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의 개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질수록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끝나고 대학교로 진학한 성인 진입기들에게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통한 성숙한 진로발달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Solberg, Good, Fischer, Brown과 Nord(1995)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진로 효능감 기대를 증진시키는 진로상담이 진로 결정 혹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기에(이상인, 2001) 이른 시기에 향상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진로 관련 발달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진입기의 성숙한 진로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횡단 연구결과인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변인이 서로 영향을 주어 상호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혔다. 또한 대학 졸업 시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 이후 시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적 인과성을 밝혀 다양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종단 연구의 특성상 남성의 탈락비율이 높아 성비가 동등하게 유지 되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남학생의 수로 인해 두 변인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남녀 차이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진로결정 과정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 선정 시 3차 년도를 기준으로 역선택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일부 학생들의 2차 년도 상태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차 년도 시점에서 졸업자 중 38명의 학생들은 취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중 39.4%는 응답 시 여전히 구직활동중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취직한 이들 중 65.8%의 학생이 약사, 간호사, 상담사, 교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어떤 종류의 직업군 및 특수 학과의 학생들이 더 빠른 취업이 가능했는지 혹은 그 대상들만의 특징이 있는지,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는 진로정체감을 단일 구성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직업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은 다소 다른 개념으로 MVS(My Vocational Situation)가 복잡한 다차원의 진로정체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Vondracek, 1992). 따라서 이 후 연구에서는 Marcia(1980)의 진로정체감 모델에 근거해 진로정체감을 4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 사이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갑원, 김민자, 전나영 (2014). 2014학년도 신입생의 대학생활 실태. 대진대학교 학생생활상담 센터 학생생활연구, 17, 111-187.
- 강선영 (1996). 아이덴티티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4). 교육통계연보. 세종: 교육부.
- 권경남, 최은희 (2010).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 24(1), 19-28.
- 김경미, 백사인 (2011).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2.

- 김기정, 이연희 (1999).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1-16.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미란 (2007).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순 (2011). Holland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연구, 19(2), 123-138.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사라형선 (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아동학회지, 34(5), 43-59
- 김선중 (200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진로장벽의 관계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희망, 삶의 의미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학생생활연구, 18(4), 75-99.
- 김수지, 이정자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20(1), 119-136.
- 김신정, 문희경 (2005).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 및 의식조사. 창의력개발연구, 8, 1-48.
- 김양희 (2008).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대한 종단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5-239.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연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장기명, 이난 (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261-278.
- 류진혜, 김은정 (2000). 2000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18, 197-239.
- 박미경, 이현림 (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

소년학연구, 15(5), 239-259.

박아청 (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박완성 (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8(2), 389-304.

박소연 (2008).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진로정체감, 진로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의 성별, 연령별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숙, 노희진, 문소정 (2014).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 지역보건교육학회지, 15(1), 45-59.

배은경 (2003). 독서를 통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주윤 (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아 (2003).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송주현 (2008).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차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난미 (2006). 사회인지 진로 모형에 기초한 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상담학연구, 7(3), 835-847.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21(2), 57-71.

윤훈상 (2005). 대학생 취업면접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구직효능감과 취업면접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 -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경선 (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이순옥 (2014). 부모관여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길, 강경희 (2011). 교육정책및철학: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2), 60-67.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4(1), 109-120.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과, 20(3), 571-586.
- 이정애, 최용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29-146.
- 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에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HRD 연구, 15(3), 215-245.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이론 연구 및 적용. 서울: 학지사.
-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학생상담연구, 101-113.
- 장지선 (200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학생생활 연구, 10, 137-154.
- 정미숙 (2015). 여자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 정철영 (1994).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계와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교육학회, 6(1), 29-46.
- 정철영 (2011). 대학생 취업지원의 실태와 과제. 한국취업진로학회 춘계학술지, 111-129.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지영, 천성문 (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 및 과정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01-136.
- 최송화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 탐색.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철, 황태향 (2010).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국상담학회, 11(3), 1255-1270.
- 통계청 (2016). 2016년 5월 고용동향.
<http://kostat.go.kr/>에서 검색.

한국고용정보원 (2013).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결과.

<http://www.keis.or.kr>에서 검색.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주원 (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2(2), 117-14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1(1), 129-143.

홍세희, 유숙경 (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81-392.

홍향표 (2003).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홍혜경 (1998). 진로미결정 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 결정상태의 유형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etz, N. E., & Ha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49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345.

Betz, N. E., Klein, K.,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Browne, M. W., & Cudeck, P. J.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ooks, L.(1990).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build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364-394). San Francisco: Jossey-Bass.
- Curran, P. J., & Bollen., K. A.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In L. Collins & A. Sayer (Eds).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p.107-1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llwood, D. (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rd, M. E. (1992).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 Ford, M. E., & Smith, P. R. (2007). Thriving with social purpose: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optimal human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42(3), 153-171.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the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4-372.
- Ginzberg, E. (1988).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58-363.
- Go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6), 545-579.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 Scanlan, K. R.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a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 307-31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oreskog, K. G. (200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ordinal variable using LISREL*.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94-199.
- Luzzo, D. A. (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Luzzo, D. A., Funk, D. P., & Strang, J. (1996). Attributional retraining increas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78-386.
- Luzzo, D. A., Hasper, P., Albert, K. A., Bibby, M. A., & Martinelli Jr, E. A. (1999). Effects of self-efficacy-enhancing interventions on the math/science self-efficacy and career interests, goals, and actions of career undecid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33-243.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cWhirter, E. H., & Paa, H. K. (1999). *Influences on career choi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Oregon.
- McWhirter, E. H., Rasheed, S., & Crothers, M. (2000). The effects of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on social cognitive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30-341.
- Pitts, S. C., West, S. G., & Tein, J. 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 333-350.
- Rueda, R., & Dembo, M. H. (1995). Motivational processes in learn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gnitive and sociocultural framework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9, 255-289.

- Robbins, S. B. (1985). Validity estimates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July*, 64-71.
- Schmidt, A., & Callan, V. J. (1992).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interven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7*(2), 123-126.
-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8-455.
- Super, D. E. (1963).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1-16).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Taris, T. W. (2002).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9*(1), 43-5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Vondracek, F. W. (1992). The construct of vocational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130-144.
- Warr, P. B.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terman, A. S. (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30*, 5-24.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Emerging Adulthood from University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Jiwon Bang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from graduation to first vocational choice. This study used 125 students who were seniors at 1st data collection, 112 who graduated at 2nd data collection period, and 137 who got employed or went to a graduate school at 3rd data collection.

This study used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and VIS(Vocational Identity Scale) for measuring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For data analysis, ARCLM(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The results were as below: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were significantly stable over time. 2)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identity and career identity predicted subsequ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o. Thus, we can se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s the cross-lagged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identity from T2 to T3 wa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times, to focu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round university graduation period for the career intervention could be more effective.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First vocational choice, Longitudinal study

